

SK에너지 노사 임금협상 완전타결

잠정합의안 수용 여부 74% 찬성 ... 기본급 3% 인상에 고용안정 약속

SK에너지(대표 구자영) 노사가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완전 타결했다.

노조는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, 전체 조합원 2549명 중 2064명(투표율 82%)이 투표하고 1564명(74%)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.

SK에너지 노사는 7월9일 울산공장에서 노사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단체협상 13차, 임금협상 7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바 있다.

합의안에는 기본급 3% 인상, 문화활동 지원금 연간 80만원 지원, 경조금과 주택자금, 학자금 지원액 인상, 건강진단체도와 의료비 지원제도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.

노사는 또 조합원의 관심사인 고용안정과 관련된 사항을 단체협상에 명문화했고, 임금협상 및 회사 분할 격려금으로 1인당 평균 주식 42주(근속연수에 따라 차등) 지급, 250만원 지급 등에도 합의했다. <저작권자 연합 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7/16>